

개발로 상처 투성이...수행환경도 '위협'

환경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창궐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자연관에 있다. 누천년을 이어온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자연을 인간의 대립적 존재나 종속된 소유물을 보고 이를 지배하고 개발해온 인간중심의 개발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초토화되고 있음을 도심의 전통사찰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곁을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도심사찰인 서울 삼성동 봉은사를 성찰적인 시각으로 돌아보았다.

흔히 봉은사를 '도심 속의 사찰'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숲속의 절이었다. 봉은사가 있는 수도산(修道山)의 선대는 한남정맥 관악산(629)에서 갈려져서 우면산(293)이다. 강남 개발 전까지 숲이 우면산에서 봉은사가 있는 수도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30여 년 전,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회색의 바다 위에 몇 점의 섬으로만 숲들이 떠 있다. 봉은사가 깃든 수도산 숲도 그 중 하나이다.

수도산 봉은사 창건연대는 아직도 속제로 남아있다. 1932년에 세운 '봉은사사적비명'에는 신라 원성왕 때 연희국사 창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경주 봉은사 창건 이야기를 잘못 끌어다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의 화려한 변신은 주위에 조성 성종과 중종의 선정릉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조선불교의 중흥 조인 보우대사가 문정왕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역사에 등장한 것도 그 후의 일이다. 문정왕후 사후 역사의 뒤안길로 잠잠하였다가 일제강점기 때 31본산 중 제1본산이 되면서 다시 역사 위로 부상하였다.

봉은사 산문은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드나들기 쉽고 소란스럽다. 차도 쪽으로 있는 철책 대신 관목으로 생울을 조성하면 소음과 먼지를 흡수할 일이다. 주차장 옆으로 늙은 수양버들이 줄지어 서 있다. 노년의 추사 김정희도 봉은사를 '물길의 절'이라는 의미로 '호사(濤寺)'라고 했는데, 수양버들을 보면 예전에 이 일대가 습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여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영안당 입성사사비를 비롯한 일련의 비군(碑群)이 자리하고 있다. 입성 전사는 현대 고승으로 젊은 날 월경사에서 머물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벌목꾼들이 월경사로 들어오자 이들을 막아내고, 종내는 총독부와 담판을 지어 벌목을 취소시킨 숲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다.

비전 주변으로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팔배나무, 너티나무 등 오래 전부터 자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커 큰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주부, 회양목, 영산홍, 철쭉 등의 식재목과 겹꽃삼일국화, 비비추, 무늬벚꽃, 아, 하늘나리, 별개미취 등이 있지만, 도식적이다.

법당 앞쪽으로 해수관음상이 비껴 앉아있다. 영안화로 온통 녹초가 서려서 수질이 불량하다. 주변 생태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연못을 위쪽으로 옮기고 비오름 역할을 할 수 있게 생태연못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보우당 앞마당은 주차장이다. 봉은사는 경내 면적(2만3000여평)에 비하여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생태사찰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봉은사 수양버들. 사진제공=조재희

주차장 옆 수양버들 일대 습한 곳이었음 짐작케 해 생태사찰로 거듭하려면 녹지율 높이고 연못 두어야 병약해 보이지만 비교적 식생 다양...귀화식물 강세

줄여 녹지율을 높여야 한다. 그 숲에다 밧길을 만들고 생태연못까지 두면 생태가 되살아날 것이다.

봉은사 경내에서 만나는 조류수는 다른 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다. 특히 경내에 향나무를 유난히 많이 심은 것은 봉은사가 왕실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성에 비해 이렇다 할 노수가 없다. 파골상점한 채 죽어가고 있는 보우당 뒤의 수령 300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고작이다.

대웅전과 지장전 뒤 양명(陽明)한 자리에 영산전, 북극보전, 영각(影閣) 등이 고관고만한 크기로 앉아 있다. 주변에 꽃나무들이 적지 않지만 대만환나비를 제외하고는 곤충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름날 수도산의 곤충은 역시 참매미가 첫손에 꼽힌다.

참매미는 연한 녹색 바탕에 흑색의 무늬가 있으며, 등 쪽에 X자 모양이 돋보이고, 분을 바른 듯 몸통이 회색회색해서 구분이 쉽다. 날개는 비교적 크고 투명하며, 갈색색 점이 있다.

미륵대불 뒷숲으로 직박구리들이 보이지만, 수도산의 조류상은 매우 빈약하다. 우면산은 제외하고라도 점으로 이어진 매봉-도곡공원-삼릉공원-수도

산-청담공원 숲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빈약하다. 고작하여 멧비둘기, 직박구리, 참새, 까치 정도이다. 수도산에 조류상이 빈약한 가장 큰 원인은 봉은사 숲속에 물이 없다는 점이다. 봉은사 뒷숲에 인공실개천을 만들어 생태연못으로 연결시키면 파골상 생태계를 조금은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멧비둘기는 사막한 봉은사 숲의 반가운 벗이다. 집비둘기보다 야성이 강한 멧비둘기는 무리를 짓지 않고 한 쌍이 독립해서 산다. 1년에 한차례 짝지어 2개의 알을 낳는다. 멧비둘기의 주식은 식물의 씨와 열매. 아직은 이 숲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가 편액으로 걸려 있는 편전은 조선말에 영기대사가 <화엄경소> 등 여러 경판을 봉안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화재가 유난히 잦았던 봉은사에서 이 건물의 명(命)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은 얇은 자리가 경내에서 수기(水氣)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옛 조사들은 전각 하나 앉히는 데도 땅의 성질을 살펴보고 앉혔다.

수도산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산이다. 보우대사가 제주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조정은 불교의

기를 꺾기 위해 선교양종을 다시 없애고 불교중흥의 본거지였던 봉은사의 수도산을 절단해 풍수의 맥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산의 생채기는 개발 이데올로기가 판을 친 현대에 들어서 더 크고 깊었다. 산의 사지를 잘라 사방에 길을 내고, 산의 가슴팍을 밀어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산꼭대기를 깔아뭉개고 학교를 지었다.

봉은사 뒷숲에서 보는 목본들로는 갈참나무, 개뽕나무, 개웃나무 등등 자생종과 함께 야카시, 가죽나무, 현사시나무, 왕벚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등등 식재종이 어우러져 있다. 전체적으로 병약해 보이지만, 빌딩숲 속의 야산으로서는 비교적 다양하다.

아까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목본류 귀화식물이다. 20년이면 밭새 늑기 시작하는 아까시는 산사태 예방과 치료 기능이 뛰어나다. 또,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제1의 밀원수이기도 하다.

수도산 초본은 귀화식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자리공, 환삼덩굴, 서양민들레, 달맞이꽃, 서양등골나물, 망초, 개망초, 토끼풀, 미국실새삼, 흰색부쟁이 등등 이보다 더 많은 귀화식물들이 들어와 있다. 본래의 자연생태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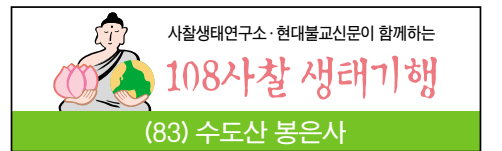
미국자리공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가 2미터 이상 자라는 미국자리공은 토양이 산성화된 땅에서 잘 자란다. 환삼덩굴 줄기와 잎자루에는 살갓에 상처를 잘 정도로 악센 잔가지가 많다. 잎은 단풍잎을 닮았다. 한해살이이면서도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여 주변의 초본을 뒤덮어버린다.

야생에서는 초본들이 기가 죽은 곳일수록 버섯들이 상대적으로 잘 자란다. 흰꽃무당버섯을 비롯해 큰갓버섯과 영지버섯 등등이 보인다. 버섯은 거의가 땅과 나무에 기생하는데, 땅에 기생하는 것들의 80%는 독을 갖고 있거나 식용하지 않는 버섯이다.

조사기간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된 흰꽃무당버섯 역시 땅에 기생하는 버섯이다. 전체가 무늬 없는 흰색이며, 갓의 지름 5-8센티 정도이다. 처음엔 호빵모양을 하다가 갓이 피면서 깔때기형이 된다.

수도산 능선은 온통 철쭉방 무성이다. 숲 사이로 삼성동 일대가 내려다보인다. 삼성동 일대는 예부터 봉은사의 하사지(下賜地)였다. 그런 것을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허허벌판 12만 평을 평당 6200원에 팔았다. 지금 무역센터를 비롯해 아셈빌딩과 한국전력 등이 들어선 자리이다. 말하기 좋아서 정부의 '토지수용'이지만, 당시 뜻 깊은 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승들이 토지매각을 주동했다. 땅을 판 돈으로 겨우 조계사 마당에 총무원 청사 하나 지었는데, 그나마 몇 해 전에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의 역사문화기념관을 세웠다. 결국 금싸라기 같은 강남 땅 12만평이 30년 만에 한층 먼지로 돌아가 버렸으니, 더욱이 그 땅에 빌딩숲이 들어서서 수행환경까지 망치고 있으니, 1600년 한국불교가 어찌 이리도 우매할까.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봉은사 전경.



꽃매미.



미국자리공.



개웃나무.



흰꽃무당버섯.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일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순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통일고무벨트 옆

명당을 만들어 주면 돈이 바뀝니다 명당 육박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 명당 육박방은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제나 삼계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도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은신분들은 명당육박방 기묘처방을 해보십시오.

◆ 기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세 운으로 변화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 집터나 공터나 조성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기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박방 051)865-9933
 전도제 49제와 결번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문 명당육박방은 각 시·청, 임지,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육박방의 처방은 황금명당 육박방의 처방입니다.